

# 충남 공공기관, 코로나19 및 3대위기 극복 '한 뜻'

## 올해 첫 공공기관 업무계획 보고회...도정의 동반자 정책 방향 공유

충남도는 19일 도청에서 도정의 동반자로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2021년 공공기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 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제 활력 회복, 3대 위기(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을 위한 각 기관의 업무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직무 성과계약과제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용찬·이우성 행정·문화체육부지사, 도 실·국장, 도내 23개 공공기관장 등 33명 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보고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개발공사 등 7개 경제산업기관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비대면 트렌드에 맞춘 온라인 플랫폼 확장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실감형 콘텐츠분야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충남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디지털 전환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분야 육성 공동협력 연구 등을 추진한다.



경제진흥원은 지난해 2월과 4월 인도 뉴델리와 베트남 하노이에 개소한 통상사무소를 연결해 성과 및 운영 현황도 공유했다.

충남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은 선도적인 미래 견인과 체험형 현장·협업 연구를 추진하고, 역사문화 재조명 및 가치 창출로 도정을 뒷받침하는 한편, 복지 현장과 행정·복지기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충남인재육성재단 등 4개 교육기관은 인재육성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장학제도 운영 △저출산·고령화·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온택트 사업 활성화와 △원인 분석을 통한 대응 방안 마련 및 생활 속 교통안전문화

확산 등의 사업을 펼친다. 충남문화재단을 비롯한 3개 문화·복지기관은 △도민 문화향유 확대와 활성화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 조성 △2021 대백제전 성공 개최 △긴급돌봄 시스템 구축 운영 △상생 가능한 복지생태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

충남체육회를 비롯한 2개 체육기관은 △코로나19 관련 체육활성화 추진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사업 및 체력인증센터 운영 등을 주요 업무로 꼽았다.

4개 공공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에서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 △자

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3대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날 도와 각 공공기관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도정 핵심정책을 실현함으로써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지속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 및 도민과의 공간·소통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도 다짐했다.

양승조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우리 지역사회에도 이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막대하다"며, "이러한 때일수록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와 시·군, 각 공공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 및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 였다.

한편 공공기관장 간담회는 도정의 동반자인 공공기관과 도정 핵심가치 및 과제를 공유하고, 기관 간 소통·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박순진 기자



## 대전에선 문화차이, 언어 차이도 이제 걱정 없어요

### 민선7기 시민 약속사업,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개소

대전시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과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18일 오전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은 이날 오전 10시 정동 소재 하나은행 대전역전지점 2층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에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유미 사회서비스원 대표 이사, 외국인 시정참여회의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제막식 등 주요행사가 개최됐다.

특히 이 자리에는 지난해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민·관 협업을 통한 외국인주민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협력한 유순기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총괄대표와 박정기 외국인사랑의진료소 대표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전시는 지역 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복지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설립을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선정하고 추진해 왔다.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는 하나은행의 컬처뱅크 프로젝트와 연계, 하나은행 대전역전지점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 후 무상 임차로 통해 조성됐으며, 2층은 사무실·강의실·무료진료소, 3층은 강의실·디지털존·상담실·쿠킹스테이지·다문화도서관, 옥상은 야외 쉼터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주민 기초생활 적용 교육, 법률·생활상담 등 외국인 주민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외에 다양한 분야의 민간 교류 및 자매·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증진 등 국제교류업무도 통합 수행할 예정이다. 센터 운영은 사업 운영 목적이 부합하고 설립 초기에 안정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서 맡아 운영하게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외국인주민은 언어장벽이나 문화차이로 인한 어려움, 생활인프라 부족 등으로 불편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며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별로는 20~24세가 가장 많다. /정민준 기자

## 충북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박차'

### 2021년도 청년 정책·문화·활동·취창업 등 9개 사업 운영

충청북도는 올해 청년이 함께하는 젊은 충북 실현을 목표로 더욱 실속 있는 충북청년희망센터(이하 희망센터)를 운영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청년 100인 토론회에서 청년들이 가진 다양한 고민과 생각을 공유하고 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성과를 올렸다.

도는 올해 ▲청년문화 3개 사업 ▲청년활동 2개 사업 ▲취·창업 2개 사업 ▲정책참여 2개 사업 등 청년들의

삶에 위로와 공감을 주는 다양한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선 청년문화 사업으로 청년이 직접 학과를 기획해 배우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키움스쿨'과 예술 강연 등 청년들의 문화 체험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청년문화 프로그램', '지진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청년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의 문화 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

청년활동 사업은 '청년단체 활동지

원' 사업과, '청년 서포터즈 기자단'을 운영해 청년들이 다양한 사회 분야에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활동 기반을 확대한다.

또한 취·창업 사업으로 예비 및 초기창업 6개 기업에 창업공간과 사업 자금 지원을 하는 '입주기업 활성화 사업'과 사회초년생에 필요한 금융·경제, 직장업무 등을 교육하는 '청년맞춤형 사회진출교육' 사업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역점사업으로 '제6기 충북청년광장'과 '청년 정책공간 아카데미' 등 2개 청년 정책참여 사업을 운영한다.

청년들의 청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청년 정책 모니터링과 새로운 정책 제안 활동을 지원하며 각

종 청년 문제에 대한 현안을 도출해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청년희망센터와 함께 도내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청년희망센터는 충북도와 협약을 통해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8월 청년들을 위한 소통·교류 공간을 본격적으로 개소해 청년 정책 제안과 진로 탐색, 네트워킹 구축 등 청년 활동의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박철우 기자

## 경남도민 소통거점공간 '경남시민참여플랫폼, 마루'

### 사회적 가치 확산 위한 도민 참여와 소통의 장 기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민들의 혁신 공간이 될 '경남 시민참여 플랫폼, 마루'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986년 7월 경상남도 동부 치산사업소 건립되어 노후화 로 공공유희공간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던 건물을 전면 리모델링해 지하 1층, 지상 3층의 도민 소통 공간 '마루'로 재탄생시켰다.

이를 위해 도는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공모를 활용해 국비 5억 원, 도비 11억 6천만 원을 투입했다.

새롭게 조성된 '마루'에는 빠르게 살기운동 경상남도협의회,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경상남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입주해 도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민관협력과 공동체 활성화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상층의 회의실과 세미나실, 지하층의 영상음향실과 다목적실은 도민에게 널리 개방되는데, 이곳에서 도민들은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소통하며 자치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루'의 조성과정 또한 도민 참여 중심으로 이루어져 눈길을 끈다. 입주단체를 비롯한 비영리단체와

도민, 전문가(공공건축가), 행정으로 '민관추진단'을 구성해, 공간 기획부터 설계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공간들로 채워나갔다.

아울러 공공건축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공간구성과 디자인에 20차례가 넘는 자문을 진행해, 건물의 공공성을 높이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의미를 더했다.

이는 기존 공공건물의 조성 과정에서 진행하는 공청회·설명회 등의 동원적 참여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향후 경남시민참여플랫폼에 거는 기대가 커지는 이유이다.

'마루'라는 건물의 명칭 역시 도민 공모 방식으로 진행했고, 도민참여형 공모 방식을 착안해 제안과 심사 평가 과정에 도민의 선호도를 적극 반영했다.

윤남실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공익활동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한 건물에 입주하면서 도민들의 혁신적 공익활동이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경남도 사회혁신 활동의 중심점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 민주시민교육, 미래를 본다

### 관·학 명사 참여 민주시민교육 명사토론회 개최...유튜브 생중계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에서 관·학이 머리를 맞대고 민주시민교육의 미래와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열린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민주시민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민주시민교육 명사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장원호 시 교육지원과장, 김동호 세종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최은실 아주대학교 교수,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만 대면으로 참석·진행하며, 시민들은 시 또는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다.

토론회는 이춘희 시장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에 대해 논의한 후, '세종시 민주시민교육의 향후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시는 오는 4월부터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의 시민자치학 특성화 학당인 '대평 학당'을 개설하는 등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자치역량 강화, 참여도 제고를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명확한 방향성 설정은 참으로 중요하다"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명사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 전남도, '청년 수출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청년기업 수출역량 강화



전라남도는 수출기반이 부족한 도내 청년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청년 수출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에 나섰다.

'청년 수출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도내 청년 수출기업을 발굴해 수출유망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매년 6개 기업을 선정해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전남에 소재한 전년도 수출액 2천만

달러 이하인 청년 중소기업으로, 업체 대표의 경우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인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도내 수출기업은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누리집(홈페이지) 지원사업 신청란에 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외 시장조사와 해외 전시회 참가, 판촉행사, 홈페이지·모바일앱 제작, 홍보 동영상·카탈로그 제작 등 13개 사업의 마케팅 비용을 업체당 총 5천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이상진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은 "수출기반이 부족한 도내 청년 수출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성배 기자

## 경기도, 평생학습마을공동체 14곳 신규 선정

### 28일 시·군 대상 희망지역 공모, 11개 시·군 마을 14곳 선정

경기도가 주민강사 등 마을활동가 양성과 마을별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습-일-문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대상 14곳을 새로

게 선정했다. 도는 지난 1월 13일부터 28일까지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조성 희망 지역 공모를 진행한 결과 수원시 광교체험학습마을, 화성시 다림산 마을학교, 하남시 윤슬누리마을·

여울너루물빛마을, 이천시 모전리 그림책 심는마을, 안성시 삼점마을·야양LHI단지, 포천시 도리돌마을·화현5리마을,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달빛는마을, 여주시 보광 맑은누리 학습마을, 동두천시 어수정 평생학습마을, 가평군 별바라기마을, 연천군 코아루 평생학습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새로 조성되는 평생학습마을공동체에는 향후 5년 간 1곳당 총 9,300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은 마을활동가 양성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포함한 주민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사용하게 된다.

박준호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새롭게 조성되는 평생학습마을공동체 내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문화 정착과 공동체성, 주민 지식·재능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우 기자